



[뉴스] 현대차그룹 임원인사 단행 02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2472.53 (+39.14)	코스닥	729.54 (+2.00)
금리 (2년)	3.689 (-0.034)	환율 (USD)	1318.80 (+7.80) (11.30)

JY '뉴삼성' 인사 초읽기... 쇠신보다 안정 속 미래 혁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삼성전자 이달 초 정기인사 DS부문 대규모 승진 예상 경계현 부회장 유력설 솔솔 생활가전사업부장도 주목 컨트롤타워 재건 여부 관심



지난 8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전자로 부터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받은 부산 소재 중소기업 '동아플레이팅'을 방문해 제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이재용 회장이 취임 후 사실상 첫 메시지를 낼 삼성전자 정기 임원 인사에 재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로벌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안정에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미래 준비를 위한 파격적인 행보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11월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2월 초 정기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통 12월 둘째주에 발표해왔지만, 올해에는 경영 환경상 인사를 서두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올해 삼성전자 정기 임원인사는 이 회장의 경영 철학을 확인할 수 있는 첫 이벤트로 주목받고 있다. 이 회장이 지난달 승진 후에도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고 협력사를 찾으며 협력 의지에만 중심을 두던 상황, 이번 정기 임원 인사로 이 회장 의중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일단 이번 정기 인사폭은 예년보다 적은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위기가 이어지는 분위기에서 조직을 개편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인사를 진행한 여러 대기업들도 대부분 대표 경영진을 유임하고 승진 인사도 꼭 필요한 대상에만 실시한 바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이미 주

요 경영진을 완전히 바꾸는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던 터라 연이어 인사 혁신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다만 이 회장이 승진 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인사인 만큼, 다시 한번 예상밖의 대규모 인사 개편을 단행하지 않겠냐는 예상도 남아있다.

핵심은 삼성그룹 컨트롤타워 재건 여부다. 삼성은 미래전략실 해체 후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물산에 각각 사업지원 TF와 금융경쟁력제고TF, EPC 경쟁력강화 TF를 설치하고 계열사별 경영을 분리한 상태다. 그러나 글로벌 위기가 이어지는데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게되면서 이 회장 복권과 승진을 계기로 그룹사 통합 컨트롤 타워를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왔다. 최근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각사 TF장을 불러모으면서 컨트롤 타워 복원을 논의하지 않았겠냐는 추측도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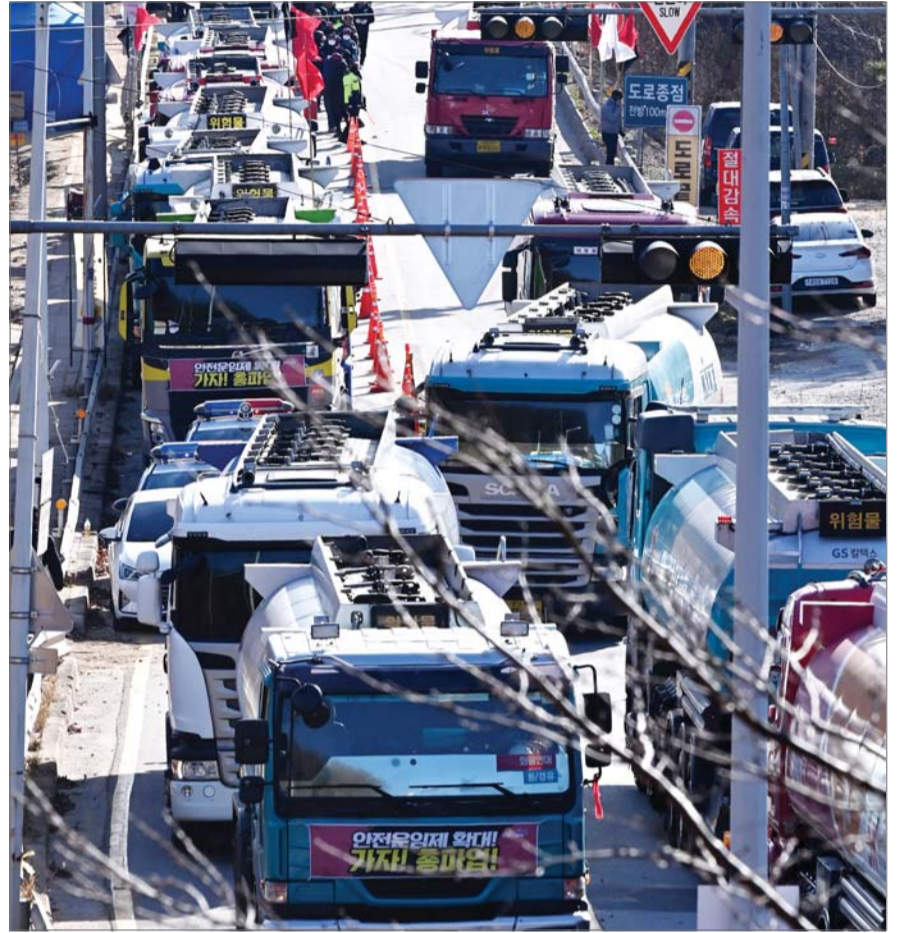
만약 삼성그룹 컨트롤타워가 재건된다면 대규모 임원 이동과 승진 인사가 불가피하다. TF 구성원과 함께 그동안 경영 공백 속에서도 성과를 만들어왔던 주요 인사들을 대거 불러들일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에서는 그룹 컨트롤타워를 복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시간을 두고 면밀한 검토 후에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컨트롤타워 재건 여부를 떠나 DS 부문에서는 대규모 승진 인사가 점쳐진다. 상반기까지 호실적을 꾸준히 이어왔고, 하반기 들어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초격차' 기술을 앞세워 여전히 시장 리더십을 지켜가고 있어서다. 당장 경계현 사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부회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반도체 시장 분석력을 높이기 위해 DS부문에 전담 연구 조직 '리서치 센터'를 설립하고 증권업계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백이 된 생활가전사업부장 자리도 채워야 한다. 일단 한종희 부회장이 겸임하고 있지만 책임이 큰 만큼 대체자가 꼭 필요한 상황. 전임자였던 이재승 사장이 생활가전사업부에서는 첫 사장이었던 터라 승진 없이 보직만 맡길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2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멈춰선 유조차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3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현역 유조차 운행하고 있다. 전날 시멘트운송업자와 화물차주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정부는 정유부문의 유류제품 운송업자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뉴스1

생산·소비 일제히 뒷걸음질 3高에 총파업까지 사면초가

생산 감소폭 2년6개월來 최고치 소비도 0.2% 줄어 두달 연속 하향

지난달 전체 산업 생산이 1.5% 감소하며 4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소비도 두 달째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물가에 금리까지 오르며 내수가 악화되고 있는데 화물연대에 이어 지하철-철도 노조까지 연쇄 총파업에 나서 경제상황이 사면초가에 갇힌 모양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2년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1.5% 감소하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감소 폭은 2020년 4월(-1.8%)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산업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3.5% 감소하며 4개월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이 또한 2020년 5월(-7.3%) 이후 2년 5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반도체 조립 장비 등 기계장비(-7.9%)와 자동차(-7.3%) 등에서 크게

감소했다. 제조업 생산도 전월보다 3.6% 감소했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4%로 전월대비 2.8%포인트 줄었다. 서비스업 생산 역시 0.8% 줄며 2개월째 하락세를 보였고, 2020년 12월(-1.0%)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0.2% 감소하며 두 달 연속 하향세다. 승용차 등 내구재(-4.3%) 판매, 의류 등 준내구재(-2.5%) 판매가 각각 줄어들었다.

정부는 최근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화물연대 등의 총파업이 경기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어윤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향후 광공업 생산의 경우 화물연대 총파업, 수출 둔화 등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 "여기에 물가, 금리 상승 상황에서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회복 흐름을 지속할 수 있는지, 수출과 제조업은 중국 경기 성장이 얼마나 빨리 안정을 찾는지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신용스프레드' 금융위기 수준 넘었다

단기자금시장 돈맥경화 심화 정부 안정대책에도 진정 안돼

신용스프레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태 수준을 넘어선 자금시장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의 채권시장 안정 대책에도 경기 침체와 신용위험 동반 리스크가 좁혀질 진정되지 않는 모습이다.

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국고채 3년물과 신용등급 A-A- 회사채 3년물 간의 신용스프레드는 176.2bp(1bp=0.01%p)로 집계됐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 29일 172bp를 웃도는 수치로 1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신용스프레드가 커질수록 시장이 회사채 투자 위험을 높게 본다는 걸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등 단기자금시장에 '돈맥경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업 단기자금 시장의 바로미터인 91일물 기업어음(CP)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0.01%포인트(p) 오른 5.53%로 나타났다.

올해 초 1%대이던 CP 금리는 지난 9월 22일부터 46거래일 연속 연고점을 경신했다.

CP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고, 이후 레고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

업어음(ABCP) 사태에 따른 자금경색이 심화되면서 이달 들어 5%대를 넘어섰다. 자금 경색으로 기업들이 CP시장에 몰려들면서다.

특히 11월 들어 미국, 유럽, 중국 등 여타 주요국과 달리 국내의 경우 신용스프레드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역전 폭 확대로 경기 침체 논란이 거셌지만, 아직 신용 위험으로 전이되거나 신용위험을 증폭시키지 않고 있다"며 "미국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와 신용스프레드는 11월 들어 동조화 추세가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6면에 계속>

/박미경 기자 mikyung96@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尹-빈 살만 엑스포 빅딜설'에 대통령실 "수준 이하의 저질 공세"
- ▲ '교육세 대학-초·중등 분배' 협의... 조희연 "검토 바람직" /사진 뉴스1

- ▲ 예결위, '공공분양'vs '공공임대' 등이 견차 조정 시도
- ▲ 백악관, 한·미 등 5개국 내년 민주정상회의 공동 주최 발표



- ▲ 여야, 전국여성대회서 "성평등 인식 개선" 한목소리 /사진 뉴스1
- ▲ 검찰, 송영길 허위사실공표 혐의 불기소 "증거 부족"